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앞부분 줄거리]** 진옥은 월국에 승전한 일을 황제에게 전하고 돌아오다 문득 대풍을 만나 외딴섬에 이르러 한 노인을 만난다.  그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왈  “사십 후에 한 자식을 두었다가 갑자년 난중에 잃었나이다.”  진옥이 왈  “그 자식의 이름을 아시나이까?”  노인이 답왈  “내 자식의 이름은 김진옥이거니와 화초암에서 공부하다가  이별하였더니 지금 사생존망을 모르나이다.”  하거늘 원수가 그제야 부친인 줄 알고 그 노인을 붙들고  ㉠대성통곡 왈  “소자의 이름이 진옥이로소이다.”  하니 그 노인이 진옥이란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고 기절하고 엎어지니 진옥이 눈물을 그치고 부친을 위로하며 전후사를 낱낱이 설화하더라.  그런 뒤에 배를 타고 만경창파에 떠서 고국으로 향하더니 한곳에 다다르니 바람결에 청아한 ⓐ 옥피리 소리 들리거늘 살펴보니 일위 **동자**가 **청의**를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쓰고 ⓑ 일엽편주를 타고 살같이 오며 왈  “김 원수는 배를 잠시 멈추소서.”  하며 급히 불러 왈  “수부 왕이 청하시니 가사이다.”  하거늘 원수가 대왈  “용왕은 수부 용신이요, 진옥은 진세지인이라.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니 어찌 서로 미치리오?”  원수가 부친께 고하여 왈  “어찌 하오리까?”  하니 그 부친이 왈  “용왕이 청하시니 어찌 거역하리오. 아모케든 가리라.”  하시니 원수가 동자를 따라 수부에 이르니 일월이 명랑하고 천지가 광활하고 주궁이 장려하고 위의가 거룩하더라.  이때 용왕이 원수를 맞아 ⓒ 백옥상  “원수의 존명을 들은 지 오래더니 오늘에서야 처음 보는도다.”  원수가 대왈  “저는 인간 사람이라. 이다지 관대하시니 감사무지로소이다.”  한참이나 자리를 즐기더니 한 신하가 아뢰어 왈  “동곡 대병이 지경을 범하오니 대왕은 급히 막으소서.”  하였더라.  이때 용왕이 원수를 돌아보아 왈  “과인이 김 원수를 청한 것은 다름 아니라 동곡 용왕이 **지경**을 침노하니 원수는 일신을 아끼지 말고 **공을 이루라**. 만일 **적병**을 소멸하면 수부의 영광이 될 것이요, 또 공을 **표창**하리다.”  하니 원수가 대왈  “저는 진세 사람이라 어찌 수부 용왕을 당하리오. 그러나 힘을 다하여 보겠나이다.”  용왕이 ㉢대희하여 즉시 정병 팔만을 조발하여 주거늘 동곡 용왕과 **대진**하니 천지가 진동하고 **남해 용궁**이 가득 찬 듯하더라. 원수 사은하고 물러 나오니 군영이 엄숙하고 위엄이 진동하는지라.  각설, 이때 중국 **대병**이 회환하다가 일야 대풍에 원수 탄 배 표풍하여 간 곳이 없는지라. 군중이 황황하여 두루 찾았으나 종적을 모르는지라. 삼 삭 만에 본국에 돌아와 황제께 아뢰길 ‘대원수 김진옥을 중도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니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대경차탄하시고 다른 제장 군졸들은 무사 귀국함을 기꺼하시나 원수 표풍함을 슬퍼하시고 또한 이상하게 여기시더라.  이때 유 승상이 이 말을 듣고 ㉣대경실색하여 부인과 소저와 주야 근심하여 천만다행으로 살아 돌아옴을 두 손 모아 기도하더라. 이에 앞서 우양 공주가 김진옥이 파혼하매 형성군의 며느리 되었으니, 김진옥이 부마됨을 지극히 피함을 시기하여 항상 모해할 뜻을 두고 그윽이 틈을 엿보더니, 원수 표풍하여 사생 모름을 듣고 대희하여 병부상서 정동한 등으로 통하여 황제께 여쭈오되  “갑자년 난중에 김진옥의 아비 시광도 오랑캐와 내응하다가 성사치 못함으로 월국으로 들어가더니 지금 진옥이 월국을 치는 체하다가 월국으로 도망하여 제 아비와 동심합력하여 중국을 해코자 하오니 그 처자를 어찌 살려 두리까? 황제는 앞날을 생각하소서.”  황제 그 말을 듣고 그러할 듯한지라 즉시 유 승상을 삭탈관직하고 진옥의 처 유 씨를 잡아다가 죽이려 하더라.  **(중략)**  각설, 이때 원수 수부에서 용궁 대병을 거느리고 일자 장사진을 쳐 제장을 호령하시니 선봉 장신갑이 아뢰어 왈  “동곡 용왕은 유수진을 쳤거늘 원수께서는 어찌 일자 장사진을 쳤나니까?”  원수 웃으며 왈  “오행 중에 상극이 있으니 유수진을 치고 들면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제장**이 서로 돌아보고 왈  “원수의 **진법**은 과연 **명장**이라.”  하며 칭찬하더라.  이때 원수가 군법을 정제하고 싸움을 돋우더니 ‘동곡 용왕은 들어보라.’ 하며 풍운조화를 부리니 동곡 용왕이 ㉤대로하여 비룡마를 타고 ⓓ 청전검을 들고 달려들거늘 원수가 응하여 동서남북으로 충돌하다가 용왕의 머리를 베어 들고 만군 중에 횡행하니 수중 명장이 대경실색하더라.  이때 적진 군중에서 ⓔ 항서를 써 올리거늘 원수가 받은 후에 군사를 몰아 돌아오니 용왕이 대희하여 원수와 그 부친을 좌상에 앉히고 원수 공덕을 무수히 **치사**하시더라. 그 부친으로 서해군을 봉하시고 원수로서 **동해군**을 **봉하**시니라.  -작자 미상, ｢김진옥전｣- |